



사과나무에

사과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 旧約聖經에도 사과 따먹지 말라는 계시를 어기고 이것을 따먹은 탓에 人間이 原罪를 지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쩌면 人間은 原始的으로 탐스러운 果實을 따먹기를 좋아하는 衝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旧約聖經은 그러한 衝動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뜻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사과열매가 나무에 주렁 주렁 달리려면은 우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커 있어야 하겠다.

튼튼한 사과나무가 아니고서는 좋은 열매가 달릴리가 없겠으니 말이다.

그러면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여 튼튼하게 자랄 것인가? 말할것도 없이 잘 가꾸어야 하며 肥料도 주고, 가지도 치고, 病虫害를 막고 까마귀, 까치가 파 먹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

나는 흔히 科学, 技術에서 研究하는 한 줄기의 일들을 사과와 나무, 그리고 農事짓는 사람과 比喩하곤 한다.

사과-研究成果, 사과나무-研究室, 農事짓는 사람-科学者 또는 技術者, 이같이 비유하여 볼때 이들 세가지 가운데서 어느것 하나 다른것 못지않게 重要하다 하겠다.

다시말해 세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빠져도 훌륭한 연구과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과열매에 눈이 팔려 나무의 가지를 치고 가꾸는 일을 잊고 있다면 바라는 充實한 열매가 얻어지지는 않을게다.

오히려 열매는 自然히 뒤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妥当하다. 따라서 사과나무를 잘 돌 볼수 있는 사람과 튼튼하게 키우는데에 관심과 精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과나무에 해당하는 研究室을 생각하여 보자. 거기엔 數 많은 크고 작은 裝備가 항상 異常없이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 機器하나 하나를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에는 研究하는 사람의 心血이 담긴 精誠이 充滿되어 있다.